

심장 치료의 기준을 바꾸다



박덕우 교수는 최고 수준의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며 심장내과 분야의 새로운 치료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냥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치료, 연구를 통해 증명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 의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의 30년 전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3분의 1 이상이 바뀔 정도로 더 좋은 치료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는 그 자신이 심장내과 치료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의사다. 최고 수준의 해외 의학 저널에 3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심장내과 분야의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2012년 아시아 최초, 역대 최연소로 미국 심장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고, 2014년 아산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수상, 2021년 미국심장학회 공식 저널 ‘JACC Asia’ 초대 부편집장 선정 등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그에게도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하 NEJM)’ 세 번째 논문 게재 소식은 큰 기쁨이었다. 무려 8년 만에, 십여 차례의 논문을 제출한 끝에 얻은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10개 정도의 논문이 계속 탈락했어요. 물론 다른 좋은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지만 NEJM이 의학계에서 최고니까

계속 도전했죠. 결과가 발표되는 날 한 시간 간격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확정 메일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스승인 박승정 교수님께 전화 드려서 ‘됐습니다!’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8년 만에 되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논문 한 편

NEJM은 전 세계 의사들의 교과서라 불리는 최고 권위의 국제 저널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가 2003년 국내 최초로 NEJM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로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은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그중 박덕우 교수는 지금까지 5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주 저자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논문은 관상동맥 중재시술, 흔히 말하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1년 후 정기 기능검사가 유효한지를 검증한 연구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 1,70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능검사를 한 환자와 하지 않은 환자 간에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음을 증명했다. 그동안 이 검사가 사망률이나 심장질환

발생률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한 박덕우 교수의 연구를 통해 정기 기능 검사를 하지 않아도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심장학회에 참석했을 때 NEJM 대표 에디터를 만났는데, 제 논문을 보고 스텐트 시술을 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매년 검사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라고요. 논문 발표 후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을 증명해줬다, 정말 가치 있는 연구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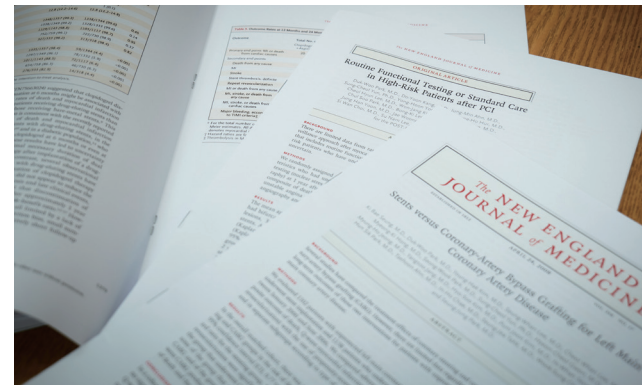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한 연구

박덕우 교수는 “의사는 환자를 열심히 잘 보는게 중요하고, 연구는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하루에만 8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환자다.

“외래 진료를 할 때마다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환자분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번 오시기가 쉽지 않으니 시간을 좀 더 배정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기자가 많다 싶으면 제가 힘들까봐 결과만 들고 바로 진료실을 떠나세요. 얼마 전에는 한 방송에서 제 환자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PD님이 ‘선생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터뷰한다고 하시더라’고 전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더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그는 진료를 하는 동시에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차도가 있을까, 오래된 치료 방법이지만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치료방법이 없을까’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임상 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환자의 도움이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임상 연구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연구인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700명에서 많게는 2천명까지 사례를 모으는데, 아직까지 임상 연구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 연구 하나하나에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짧게는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도 걸리는 연구기간 동안 환자 2천 명의 마음과 연구간호사 20명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논문이 잘 안 되면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죠.”



위) 박덕우 교수가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게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타비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덕우 교수, 박승정 석좌교수, 김주현 전문의.
아래) 박덕우 교수가 주저자로 NEJM에 게재된 논문들.

최고의 심장내과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뤘으면서도 박덕우 교수는 또 새로운 연구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비 시술 같은 심혈관 중재시술 연구, 약물치료 등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약에 대한 연구 등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박승정 교수님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 “일흔을 바라보시는 나이에도 항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궁금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죠. 제가 교수님 나이가 되어도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요. 제 인생의 멘토시죠. 교수님이 평생을 바쳐서 다져온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내과라는 명성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연구할 수 있었어요. 후배들에게 종종 ‘20년 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으니,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양궁팀처럼 30년 1등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돕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하는 박덕우 교수는 “앞에서 이끌어준 스승과 함께해 준 동료 교수들, 도와준 직원들, 늘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글 편집부**